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눈먼 소경인 바르티매오를 치유하는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다. 세상을 세속의 눈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오늘 복음을 묵상 할 수 있다.

사실 깊이 묵상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신앙의 눈과 입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신앙의 눈이라는 묵상 주제보다, 소경 바르티매오의 모습이 더 마음 깊이 다가온다. 얼마나 간절했었을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현실과 더불어 그는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다. 그에게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향한 비전은 없었다. 절망, 비관, 낙담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만이 그의 삶을 가득채웠을 뿐이다. 이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온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겨난 것이다. 삶의 목표가 설정되고, 인생 설계가 시작되는 고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주위의 부정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간절했던 그의 소망을 간략한 기도로 표현한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그의 외침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시끄럽다고 구박을 한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더 간절히 외친다. 이러한 그의 간청에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시어, 그에게 말씀하신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치유를 하실 때, 치유의 행동을 하시고 치유를 하시는데, 여기서만큼은 바르티매오의 믿음만을 말씀하신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컸으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바르티매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비전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도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비

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향한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 바르티매오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되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 :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승진 필립보 신부

<천국에서 날아온 김수환 추기경님의 편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신부님..수녀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푼 보잘 것 없는 사랑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선택된 자로 살아온 제가
죽은 후에도 이렇듯 많은 분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니

나는 행복에 겨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생전에
하지 못한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을 쳐다본다."
달은 하느님이시고, 저는 손가락입니다.
제가 그나마 그런대로 욕 많이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분의 덕분입니다.
성직자로 높은 지위에 까지 오른 것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그분의 덕입니다.

속으론 겁이 나면서도
권력에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 그분의 덕입니다.
부자들과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유혹이 많았지만
노숙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 그분의 덕입니다.

화가 나 울화가 치밀 때도
잘 참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분의 덕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유머로 넘긴 것도

사실은 다 그분의 덕입니다.
나중에 내가 보고도 약간은 놀란
내가 쓴 글 솜씨도
사실은 다 그분의 솜씨였습니다.
내가 한 여러 말,
사실은 2천 년전 그분이 다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분의 덕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솜씨만으로
한 일들도 많습니다.

빈민촌에서 자고 가시라고 그렇게 붙드는
분들에게

적당히 핑계대고 떠났지만
사실은 화장실이 불편할 것 같아
피한 것이었습니다.
늘 신자들과 국민들만을 생각했어야 했지만
때로는 어머니 생각에 빠져 많이 소홀히
한 적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너무 아파 신자들에게는
고통중에도 기도하라고 했지만
정작 나도 기도를 잊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아니 훨씬 못한
나약하고 죄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 주십시오.
대신, 저를 이끄신 그 분
죽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손가락 일뿐입니다.
손가락을 보지말고 그분을 쳐다 보십시오.

천국에서 김수환 스테파노
(여기서는 더 이상 추기경이 아닙니다)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
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
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
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
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오늘 미사후에 확대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각 단체장, 구역장도 참석 바랍니다.

◎ 공석인 전례부장직을 최희수 카타리나 자매가 임시로 대행합니다.

◎ 태양초 고춧가루 판매 안내

이번에 런던 성당 바자회 행사와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도산 태양초 고춧가루를 판매합니다. 1Kg에 \$40불 예상입니다.

문의 및 구입은 한 데레사 성모회총무에게 해주세요 (한정 분량입니다. 서두르세요)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막시모 형제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 519 279 4005

◎ 10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2구역입니다.

▷ 11월 : 청소년부

▷ 12월 : 사목회의

◎ 교육관/사제관 관리 일정

▶워털루 3구역 10월

▶워털루 4구역 11월

◎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 음악회 안내

일시 : 11월 13일 (금) 오후 7시 30분

티켓 : 성인 \$ 10, 어린이 \$ 5

문의 : 성가대 단장 문혜라 크리스티나

판매대금은오늘까지 사목총무에게 전달해주세요

* 마부작침(磨斧作針) *

磨 갈 마 **斧** 도끼 부 **作** 만들 작 **針** 바늘 침

풀이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음을 비유함

당나라의 대표적 시인 이백(李白)의 어렸을 때 이야

기다.

그는 다섯 살 때 이미 “육갑(六甲)을 암송했고 열 살 때 제자백가를 독파했으며 재물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이백이 아버지의 임지인 촉(蜀) 땅의 성도에서 자랄 때, 학문에 몰입하기 위해 집을 떠나 상의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성격의 이백에게는 그런 생활이 통 맞지 않았다. 하루는 공부에 실증이 나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산 중턱쯤에 한 할머니가 바위에 도끼를 열심히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백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어보았다.

“할머니, 지금 뭐하세요?”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이백은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예? 그렇게 큰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요?” “그렇단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만들 수 있지…”

이백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만들 수 있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할머니의 인내심과 노력에 마음이 움직여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 후 이백은 학문에 정진하여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할머니의 노력과 인내심을 떠올리며 분발했다. 그리하여 훗날 두보와 더불어 중국의 대표적 시인이 되었다.

-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할머니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면 훗날 마부작침(磨斧作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굿뉴스에서 발췌

2009년 10월 11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80.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290.00 182(20) 188(20) 194(20) 196(20) 205(20) 206(20) 214(10) 219(10) 224(50) 226(100)
(성모동산 누계 : \$30 \$ 4905.00)
합 계 : \$ 970.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22009-43호

2009. 10. 25.

연중 제 30 주일

해설 고 영호

차주 해설 이 명희

성 가

입 당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봉 헌 (219) 주여 몸과 맘 바치오니

성 체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퇴 장 (83) 주 찬미하라

화 답 송 ◎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독 서

10월 25일 한택중 한재희

11월 1일 박재영 박경미

봉 헌

10월 25일 윤명원 윤명희

11월 1일 한택중 한재희

복 사

10월 25일 구하람 김근영

11월 1일 구한형 이수민

친 교

10월 25일 성모회와 캠브리지 구역 협조

11월 1일 성모회와 키치너 구역 협조